

漢醫學의 客觀化와 漢洋方病名統一을 爲한 方法¹⁾

尹吉榮

I. 病類

疾病의 原因을 內因과 外因으로 兩分하는 것이 대체적이었으나 『三因方』에서 疾病을 外感·內傷·外傷으로 三分하고, 이에 따라 外感病은 外因, 內傷病은 內因, 外傷病은 不內不外因이라는 三因說을 세운 後로 漢醫學에서는 이것이 通用되었다. 그러나 不內不外因도 亦是 外因에 屬한다.

三因病을 다시 細分한 『東醫寶鑑』의 卍次的 分類를 보면 身形·精·氣·神·血·夢·聲音·言語·津液·痰飲·心肝脾肺腎의 五臟·膽胃小腸大腸膀胱三焦(胞包含)의 六腑·小便·大便·頭·面·眼·鼻·口舌·齒牙·咽喉·頸·項·背·胸·乳·腹·臍·腰·脇·皮·肉·脈·筋·骨·手足·毛髮·前陰·後陰·風·寒·暑·濕·燥·火·內傷虛勞·霍亂·嘔吐·咳嗽·積聚·浮腫·脹滿·消渴·黃疸·痰癰·瘰癧·邪祟·癰疽·諸瘡·諸傷解毒·救急·怪疾·婦人·小兒로 分類하였다.

이 分類는 原因의·部位의·病症의으로 混成된 分類로 編纂上 簡便한 方法을 取한 것이니, 一貫性있는 病類의 分類가 아니므로

로 이제 臨床上 必要한 病類의 分類를 試圖해 본다.

1. 風性 疾患

六淫(氣候의 風寒暑濕燥火 六氣가 過勝한 것)의 病中 外感性疾患·內感性疾患·瘡毒性疾患을 別途로 取扱하고 風寒熱火濕燥의 各病에서는 나머지 疾患을 다루기로 한다. 이 病들 亦是 六淫의 邪라고 하나, 實인 즉 外感·內生의 分이 없이 統合的으로 다루어 왔으며 治療에서 多少 外感·內生의 分이 있다.

風은 運動異常 卽 運動異常亢進 및 運動障礙와 氣候의 風氣를 意味하는 陽邪(發揚性病邪)이다. 風이라면 搖動(頭顛·手足顛·身顛 等)·眩暈(目眩·頭暈)²⁾·癱瘓(搖擲攀掣之類나 卽 痙攣)·麻痺(麻木痺不仁)·急性強直 等 風의 症狀으로 中風諸症·痛風·風厥·痰厥·中氣·麻痺不仁·疹癩(身疹脇痛·偏痛其他因風疼痛 等)과 上部疾患·大風(癩病), 其外 數多한 病類를 發하는 것으로 이런 病症을 일으키는 病理的 因子를 風邪라고 한다. 모든 病의 始發에는 風을 건다고 하여

1) 『大韓韓醫學會誌』, 1972: 秋號에 실렸던 尹吉榮(1911-1987, 號는 玄谷)선생님 생전의 논문이다. 가능한한 실렸던 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誤字와 빠진 한자는 수정을 하였다.

2) 眩暈(目眩·頭暈)에서 “暈”이 원래의 원고에는 “暈”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風은 百病의 始니 百病의 長이나 하여 病症과 病處가 流動的이므로 善行하고 數變한다고 한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外感·內生으로 高血壓·神經痛·류마치스(rheumatism)·感覺神經 및 運動神經異常·運動器官障礙 등을 일으키어 發生한 病症이라고 할 것 같다.

2. 寒性 疾患

寒은 體寒과 氣候의 寒氣를 意味하는 陰邪(沈衰性 病邪)다. 寒이라면 體熱下降·身寒不熱·拘縮惡寒不熱·手足厥冷 등 寒的 症狀으로 癩疔·堅痞·項脹急痛(腹滿急痛)·寒厥·病冷·中寒·胸中寒·腹中寒·中清腸鳴(이는 燥清으로 燥에 屬할 것이나 治療上으로 보아 寒에 入한 것)·骨寒疼痛·膝寒·虛寒·實寒·眞寒假熱 等等 數多한 病症에 上下出液清冷·下利清白·手足冷·吐利腥穢·食已不飢·小便清利或不利 等症을 隨伴하는 것으로 이런 病症을 일으키는 病理的 因子를 寒邪라고 한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外感·內生으로 代謝異常沈衰를 일으키어 일어난 病症이라고 할 것 같다.

3. 熱(火)性 疾患

熱火는 體熱과 氣候의 暑火를 意味하는 陽邪(亢進性 病邪)다. 暑라면 夏暑를 받은 것이요 熱火라면 體熱上昇·身熱惡熱·身熱不寒·發熱惡寒·戰慄 等 熱火的 症狀으로 脊鬱·鬱火·痛癢(微熱則癢 熱甚則痛)·疹癢骨熱·四肢熱·熱厥·潮熱·鼓脹·諸痛聲鼓·暴癰冒昧·消渴·急病急死(暴病暴死)·實熱·中熱·眞熱假寒 等 數多한 病症에 大便難·使尿秘澀·尿赤澀·小便渾濁·頰赤·頰渴·五心煩熱 等症을 隨伴하고, 暑는 大개 身痛은 없고 中暈·中暑·伏暑 等等 數多한 病症을 일

키는 것으로 이런 病症을 일으키는 病理的 因子를 暑邪·熱邪·火邪라고 한다. 注夏도 暑에 屬한다.

대체로 火라면 炎症性과 神經性的인 면이 많고 熱이라면 身熱과 熱性疾患이 많은 것 같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熱火病은 外感·內生으로 代謝異常亢進 및 神經性熱로 일어나는 病症이라고 할 것 같다.

4. 水濕性 疾患

濕은 水分停滯와 氣候의 雨濕을 意味하는 陰邪(沈滯性 病邪)다. 水濕(水邪와 濕邪를 通稱함)이라면 中滿·身重·腫滿·漫腫·腑腫肉如泥按之不起·痞塞 等 水濕的 病症으로 諸瘰·項強·痞痛·腫痛(濕多疼痛)·關節痛煩·濕腫·面腫·肚腹脹滿·浮腫(水腫)·中濕·遍身黃如黑色·赤白濁·淋瀝·濡泄(小便反澀)·下部疾患 等等 數多한 病症에 舌苔³⁾白滑潤·小便不利·身重 等症을 隨伴하는 것으로 이런 病症을 일으키는 病理的 因子를 水邪·濕邪라고 한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浮腫·水腫·關節炎·류마치스·脚氣浮腫·腎臟 膀胱尿道 等 炎症을 들 수 있으며 水分代謝異常으로 일어나는 病症이라고 할 것 같다.

5. 燥性 疾患

燥는 體液減少 및 體熱減少와 氣候의 清氣(秋涼의 氣)·燥氣(秋氣의 乾燥)를 意味하는 邪(『醫鑑』에서는 陽邪라고 한 것 같으나 陰邪도 될 수 있는 것으로 陰陽分別이 不必要한 病邪)다. 燥라면 皮膚乾燥·大便秘·血液減少·體液減少⁴⁾ 等 燥的 病症으로

3) 舌苔의 “苔”자가 원래는 “胎”로 되어 있는데 들렸으므로 바로 잡았다.

4) 體液減少에서 “少”가 원래의 원고에는 “小”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咽鼻乾燥·口舌乾燥·水液衰少而煩渴·腸胃因枯便難·手足痿弱·數提·中脘腸鳴(이는 寒性疾患에 便宜上 入하였음) 等等 數多한 病症을 發하는 것으로 이런 病症을 일으키는 病理的 因子를 燥邪라고 한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外感·內生으로 體液·血液·湯液 等 減少와 脫水로 일어나는 病理라고 할 것 같다.

6. 外感性 疾患

外感性 疾患은 六淫의 邪인 風邪·寒邪·暑熱火邪·雨濕邪·燥清邪를 받아 表邪表症으로 始發하는 病症으로 風寒의 類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感冒와 Influenza類라고 할 것 같다. 그러므로 傷寒·寒疫·傷暑·暑感·傷濕·傷燥(秋病) 等 感冒·Influenza症狀을 일으키는 病理的 因子를 風寒邪·暑邪·燥邪라고 하며 病勢의 輕重에 따라 輕하면 淸라고 하고, 좀 重하면 傷이라고 한다. 例들 들면 傷風·冒風과 같은 것이다.

7. 內感性 疾患

內感性 疾患은 六淫病邪의 內侵感染으로 溫熱이 內發하여 裡症이나 裡出表症으로 始發하는 溫病·熱病·濕溫·瘟疫 等々の 病으로 溫熱의 類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腸窒扶斯類의 熱性急性 傳染病이라 할 것 같다.

8. 內傷性 疾患

內傷性 疾患은 飲食內傷·勞役內傷·內傷虛勞 等으로 나뉘며 또 勞倦內傷은 勞役內傷·七情內傷·房勞內傷으로 나뉜다.

1) 飲食內傷

飲食內傷은 飲食不節로 脾胃不和를 일으

키어 病症을 發하는 것으로 脾胃病·吞酸嘈噯·食傷·噎膈·反胃·嘔吐·嘔吐·吐瀉·霍亂·轉筋·泄瀉·痢疾·惡心嘔吐·心下痞滿·倒飽·脹滿·食不下 等等 數多한 病症을 發하는 것이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消化不良·急慢性胃腸疾患·胃腸障礙·食中毒·其他 消化器官系統疾患이라고 할 것 같다. 吐瀉霍亂·轉筋症은 食中毒 만이 아니라 콜레라도 包含하는 것으로 濕性·寒性·熱性으로 分한다.

2) 七情內傷

七情內傷은 六鬱七情으로 發하는 病이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情緒的 衝擊 抑壓·緊張 等으로 發하는 病症으로 Stress 또는 精神神經症이라고 할 것 같다.

3) 房勞內傷

房勞內傷은 犯房으로 腎虧를 일으키고 虛火가 浮動하여 疲勞·發熱·煩躁·頭痛·腰痛을 發하는 病症이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性交後 疲勞性 疾患이라고 할런지? 대개 肺炎이란 診斷이 잘 내려지기도 한다.

4) 勞役內傷

勞役內傷은 勞力過重으로 疲勞·發熱·虛煩·煩躁 等症을 發하는 病症이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疲勞性 疾患이라고나 할런지? 이는 原因不明熱이라는 診斷이 잘 내려진다.

5) 內傷虛勞

內傷虛勞는 飲食失常·起居不時·喜怒不節·憂愁思慮·色慾不戒·病苦·生活苦 等으로 氣血不足·精神困備·諸虛不足을 일으키어 病症을 發하는 것이다. 虛할 때 寒을 感하면 陽을 損하여 陽虛陰盛이 되고, 熱을 받으면 陰을 損하여 陰虛陽盛이 되니 陽虛陰寒의 病症과 陰虛內熱의 病症을 善發한다.

陰虛火動·手足厥冷·飲食減少·心常驚惕·精神昏短·遺精夢泄·腰背胸脇筋骨引痛·骨蒸

·夜多盜汗·潮熱自汗·痰盛咳嗽 等症이 常症이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營養失調·虛弱體質·貧血·活力沈衰·體力減少·體成分減少·精神神經虛弱 等이라고 하겠으나 陽虛氣衰는 神經衰弱性 疾患類이고 陰虛火動은 肺結核性 疾患類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러나 神經衰弱性類 疾患은 正邪虛實性類 疾患에서 다루기로 한다.

9. 外傷性 疾患

外傷性 疾患은 外部로부터 物理的 또는 化學的 作用이 加해져서 損傷을 일으킴으로서 일어나는 病症이다.

10. 正邪虛實性 疾患

病症虛實에 있어 陽邪가 盛하면 勿論 實症이 되지만 陰邪가 盛하면 實症이 되기도 하고 一實一虛로 表實裡虛나 裡虛를 取하기도 한다. 그러나 兩者가 다 그 根本이 邪氣가 實한 것이다.

正虛에 있어서도 一虛一實로 血實氣虛나 氣實血虛가 되기도 하고 氣血俱虛가 되기도 하며 外感이나 內傷으로 氣實이 되고 血은 寒을 받거나 瘀血로 變하면 血實이 된다. 또 神虛에도 痰이나 瘀血 또는 熱을 받으면 實症이 나타나기도 하나 그 根本은 虛한 것이다. 그래서 實은 邪氣實이고 虛는 正氣虛라고 한다. 痰은 正虛로 인해 생 한 것이나 病症을 일으킬 때는 實이 된다. 따라서 實에도 挾虛가 있고 虛에도 挾實이 있다.

大抵 病人의 徵狀을 虛實로 大別해 보면 病邪(病理的 因子)가 盛하여 發生한 病症과 正虛(正氣虛 卽體虛, 正은 生理的 因子)하여 發生한 病症으로 兩分된다. 이것을 다시 分하면 病邪가 盛하여 發生한 病症은

陰邪의 症(寒邪와 濕邪)과 陽邪의 症(風邪와 熱邪)으로 大分되고, 正虛로 發生한 病症은 後天虛(元氣虛)와 先天虛(陽陰虛)로 大別된다. 이를 또 다시 나누면 邪盛은 風寒相搏症·風熱併合症·風濕相搏症·寒濕併合症·寒熱相搏症·濕熱相搏症·風寒濕雜合症·風寒濕熱雜合中症으로 分類되고 正虛는 氣虛·血虛·氣血俱虛·陽虛·陰虛·神虛·精虛症으로 分類된다.

風寒相搏症은 陽邪인 風과 陰邪인 寒이 相搏混雜하여 病症을 發하는 것으로 瘧疾·咳嗽·肩臂痛·腰痛·頭痛 等等 數多한 病症을 發하는 것이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malaria·氣管支炎·精神痛 等이라고 할 것 같다.

風熱併合症은 陽邪인 風과 陰邪인 熱이 併合하여 風症과 熱症의 病症을 併發하는 것으로 血沸鬱·咳嗽上氣·喘逆·頭目昏暈⁵⁾·手足痲癢·眩暈 等等 數多한 病症에 小便赤澀 等症을 隨伴하며 實型을 取하는 것이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代謝異常亢進으로 일어나는 病症이라고 할 것 같다.

風濕相搏症은 陽邪인 風과 陰邪인 濕이 相搏하여 風症과 濕症을 發하는 것으로 一身重痛·身微腫疼痛·一身盡痛·骨節疼痛·身重·身體疼煩不能自轉側·疔癢·陰腫痛·關節疼痛不利·屈伸困難·骨節疼煩掣痛不得屈伸 等等 數多한 病症에 自汗口渴·水分代謝異常을 일으키어 神經痛·關節炎·류마치스·其他 症을 發한 것이라고 할 것 같다.

寒熱相搏症은 陰邪인 寒과 陽邪인 熱이 相搏하여 寒症과 熱症을 發하는 病症으로, 虛한데 寒熱을 受한 것이니 表裡가 不和하고 陰陽이 不調하여 寒熱往來가 瘧疾과 類

5) “暈”은 원래의 원문에는 “暈”으로 되어 있는데, 틀린 것으로 생각되어 바로 잡았다.

似하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神經性 寒熱이라고 할 것 같다.

寒濕併合症은 陰邪인 寒과 陰邪인 濕이 併合하여 寒症과 濕症을 發하는 病症으로 漫腫疼痛·四肢厥冷·胸腹作痛·胸滿惡食·脚氣浮腫·疝瘕·一身盡痛·囊腫·面腫·偏墜·胸痛·腫滿疼痛·脹滿·身疼發熱面黃而喘·鼻塞而煩·頭痛·關節不利牽掣作痛·身黃如肢色·肢節背沈重痛·奔豚 等等 數多한 病症에 小便清利不渴·小便不利 等症을 隨伴하는 것으로 虛型을 取하는 것이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代謝異常沈衰의 病症이라고 할 것 같다.

濕熱相搏症은 陰邪인 濕과 陽邪인 熱이 相搏하여 濕症과 熱症을 發하는 病症으로 周身疼痛·肩重麻痺·肢節肩背沈重痛·肢體煩痛·水腫·黃疸·拘攣·痿弱無力·陰囊濕癢 等等 數多한 病症에 小便赤澀·引飲自汗·小便不利 等を 隨伴한다. 濕熱症은 十居八九나 된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炎症進行性 神經痛·水腫·關節炎·류마치스·其他라고 할 것 같다. 寒濕症과 濕熱症은 類似한 것으로 다만 小便赤澀·引飲自汗과 小便不利而不渴·尿清不渴 등이 다르다.

風寒濕雜合症은 陽邪인 風과 陰邪인 寒과 濕이 雜合流滯되어 發하는 것으로 骨節疼痛·皮膚不仁·筋拘抽搐·麻木痺痛·痺症脚氣 等等 數多한 病症을 發하는 것이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脚氣·麻痺 等이라고 할 것 같다.

風寒濕熱雜合中症은 陽邪인 風熱과 陰邪인 寒濕이 相搏中人하여 發하는 病症으로 痙攣의 類나 項強은 濕에 屬하고 反折筋急은 寒에 屬하고 筋弛縱不收는 熱에 屬한다. 手足動搖·咬牙脚攣急·強直·角弓反張 等等 數多한 症을 일으키는 것으로 現代的으로 말하면 代謝異常亢進과 代謝異常沈衰

가 相衝한다고 할런지? 腦炎·腦脊髓膜炎·破傷風이 이에 屬한다.

後天虛는 出産以後에 得한 一切虛를 意味하는 경우와 다만 元氣虛를 意味하는 境遇가 있는데 여기서는 脾를 後天이라는 概念에서 元氣虛를 나타낸 것이다. 先天虛도 出産以前에 得한 一切虛를 意味하는 경우와 出産以後에 得한 陰陽虛를 意味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腎을 先天이라는 概念에서 腎의 陰陽虛를 말하는 것이다.

腎의 陰陽虛는 元陰元陽虛니 生命存續能力沈衰로 볼 수 있다. 生命存續能力은 體外的인 活動과 體內的인 活動을 하는데, 陰的 機能과 陽的 機能으로 兩分되니 陰的 機能을 元陰이라고 하고 陽的 機能을 元陽이라고 한다.

陰虛(元陰虛)는 生體物質 및 津液의 源泉이 되는 原津과 精(生體를 構成하는 單位體로 여기서는 細胞에 해당한다)의 虛로 볼 수 있다.

陽虛(元陽虛)는 再生力 및 復舊力과 各機能 補助力 및 生殖力의 沈衰로 볼 수 있다. 體外的인 活動은 子孫繁殖을 위한 生殖機能이고, 體內的인 活動은 自己保存을 위한 再生機能·損傷復舊機能·各機能 補助機能 및 精生成과 原津生成機能이다. 補元陰을 補陰이라고 하기도 하고 補水라고도 하네 補元陽을 補陽 또는 補火·補命門火라고도 한다.

活力이 있어야 飲食物을 攝取할 수 있고 飲食物을 攝取해야 活力이 旺盛해지며 活力이 旺盛해지면 生命存續能力이 健存해지게 되고 生命存續能力이 健存하여야 活力을 發할 수가 있는 것으로 生命存續能力은 活力의 根源이 되고 活力은 生命存續能力을 存續할 수 있게 補佐하는 것으로 相互連鎖的 關聯性이 있다.

元氣虛와 氣虛는 活力沈衰로 볼 수 있는데 氣는 精神의 根蒂며 呼吸의 根이라고 하며 百病이 氣에서 始한다고 한다. 氣虛하면 呼吸氣少·動作喘乏·面色黧白·日無精采·懶言語·自汗心煩·四肢困熱·動作無力 等症에 脈이 多弦인데, 弦而濡하며 無力하고 脈沈微無力하면 虛甚한 症이다.

七情所傷·飲食不節傷·勞傷過度·外感所傷 등이 있으면 諸氣病을 發하는데 七情不舒하면 氣鬱하고; 氣鬱하면 成積하며; 氣息膈塞不通하면 氣聚하고; 中氣滯澀하면 氣滯하고; 氣留蓄하여 不行하면 氣結이 되는데, 怒하면 氣逆하고; 喜하면 氣散하고; 悲하면 氣消하고; 恐하면 氣下하고; 驚하면 氣亂하고; 勞하면 氣耗하고; 思하면 氣結하고; 渴하면 氣泄하고; 寒하면 氣收한다. 氣上은 逆上이요; 氣下는 氣消하여 下降하는 것이며; 氣消는 氣가 運行치 못하여 潛消하는 것이다. 氣病에는 痰이 混雜한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活力沈衰나 活力不活性 또는 活力沈滯로 發한 病症이라고 할 것 같다.

血虛症은 筋急·朝涼暮熱·皮膚錯甲·面色蒼白(白無色)·目花頭眩 等症에 脈細無力 또는 弦而微하며, 脈澀而微하면 血虛甚한 症이고 脈이 不調하면 脈病이다.

諸血出證을 말하면 腸風은 血濇한 것이니, 虛熱에 風이 生한 것이고, 臟毒은 血濁하니 積熱食毒濕熱이며 血人下하는 것을 結陰이라고하니 虛寒이요 使前을 近血, 使後를 遠血이라고 한다. 또 蠱毒蟲·痔로도 出血한다. 吐血·衄血에는 陽勝과 陰勝이 있는데 陽勝陰하면 血熱妄行하고 陰勝陽하면 血不順經하여 出血한다. 血行清道하면 鼻로 出하고 血行濁道하면 口로 出하며, 嘔血은 肝에서 出하고 吐血은 胃에서 出하고, 衄血은 肺에서 出한다. 耳血을 衄라 하

고 眼血도 衄라 하고 膚血을 血汗 一名 脈衄 또는 脈溢이라고 하는데 毛孔에서 出하는 것으로 主로 汗極虛에 有火로 出한다. 口鼻併出을 腦衄이라고 하고 九竅出血을 大衄이라고 하며 七竅出血을 血溢이라고 한다. 其他 血證은 婦女性 疾患·五官系 疾患·瘀血性 疾患을 參照하면 된다.

神虛는 神志不定·喜怒無時·驚悸·怔忡·神精恍惚·夜多異夢·精神昏短·健忘·不安 等等 數多한 病症을 發하는 것으로 現代的으로 말하면 精神神經衰弱이라고 할 것 같다.

精虛는 精血減少, 精髓·骨髓·腦髓減少 등으로 目眩無所見·耳無所聞 等等 數多한 病症을 發하는 것으로 現代的으로 말하면 體液·精液 等 減少라고 할 것 같다.

陽虛는 陽補不足·遺精·夢泄·白淫·脫精·陰痿·下部惡寒·足冷·上部渴甚·欲飲而反吐·小便數 等 數多한 病症을 發한다.

陰虛는 陰虛發熱·陰虛火動 等等 數多한 病症을 發하는 것으로 精虛도 陰虛에 屬한다.

또 附隨的으로 말하면 五臟虛와 五臟實이 있다.

肝은 虛하면 目眩無所見·耳無所聞·善恐如人將捕之라 하니 血虛의 病症이고, 實하면 兩脇下痛引少腹·善怒하니 血實氣鬱不舒의 症이다.

心은 虛하면 胸腹大·脇下與腰背相引而痛이라 하니 虛損血脈不舒의 症이고, 實하면 胸中痛·脇支滿下痛·肩背胛間痛이라 하니 邪實의 病症이다.

脾虛하면 腹滿 腸鳴·飧泄不化⁶⁾라 하니 脾虛寒不運濡泄의 病症이고, 實하면 身重·善飢·肉痿不收行·善瘦·脚下痛이라 하니 風

6) 飧泄不化에서 “飧”이 원래의 원고에는 “飧”으로 되어 있는데, 불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濕熱의 病症이다.

肺虛하면 少氣不能吸息·耳鳴·噎乾이라 하니 氣虛·津少의 症이고, 實하면 喘咳·逆氣·肩背痛·汗出·股尻陰脾脘足皆痛은 熱邪實로 上傷肺·下傷津液한 症이다.

腎虛하면 胸中痛·大腹小腹痛·清厥·意不樂이라 하니 腎陽虛의 症이고, 實하면 腹大·脛腫·喘咳·身重·寐汗出·惡風이라 하니 水濕의 寒不運濡泄의 病症이고, 實하면 身重·善飢·肉痿·足不收行·善癢·脚下癢이라 하니 風濕熱의 病症이다.

그러므로 五臟虛實 亦是 正邪虛實性 疾患內에 屬한다.

그러면 以上 提示에 의해 風寒症·風熱症·風濕症·寒熱症·寒濕症·濕熱症·風寒濕症·風寒濕熱症·氣病虛實症·血病虛實症·神病虛實症·精不足症·陰虛症·陽虛症이 있으며, 精不足症은 陰虛症에 屬하고 氣·血·精은 虛와 實로 分되니 十六病症이 된을 알 수 있다.

11. 瘀血性 疾患

瘀血病은 蓄熱·打撲·其他原因으로 血液이 離經 또는 留滯되어 變生한 體內毒인 瘀血로 發하는 病이니, 現代的으로 말하면 血栓·血液變成·體成分變成으로 因해 發하는 疾患이라고 할 것이다.

12. 痰飲性 疾患

痰飲性 疾患은 淋巴液이 留滯하여 變生한 體內毒인 痰으로 發生하는 疾患이다. 水·濕·痰 三者가 다 水毒으로 十病九痰이라고 하는만큼 여러 病에 關與한다.

痰은 痰熱·痰積·痰濕·風痰·驚痰·食痰·痰火·寒痰·熱痰·濕痰·燥痰·氣痰·血痰의 分이 있고, 飲에는 支飲·留飲·伏飲·溢飲·懸飲·

澀飲·積飲·痰飲·飲痞·水結胸의 分이 있다. 또 流注·痰塊·痰骨·痰核·痰瘤 等等 數多한 病症을 일으킨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構出性 疾患과 膠質性 疾患이라고 할런지, 多發性肌肉炎·骨膜炎·結核(非結核性 疾患·結核指體上 結締物)이 痰에 屬한다. 咯痰도 痰이고, 胃中不和로 生한 粘液性 液體도 痰이다.

13. 積聚性 疾患

七情內傷에 風寒이 身上을 襲하고 清燥가 身下를 襲하여 發하는 것으로, 始發에 常處가 있고 痛症이 移動치 않는 것은 積이고, 始發에 常處가 없고 移動하는 것은 聚다. 伏梁·息賁·痞氣·肥氣·奔豚의 五臟積 또는 癥瘕·痰癖 等 數多한 病症이 있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囊腫·腫瘍·肉腫癌과 腸內積在物이라고 할 것 같다.

14. 瘡毒性 疾患

瘡毒性 疾患은 六淫의 邪가 侵入하여 瘡腫癰瘍 等を 發하는 病症으로 六淫의 邪가 瘡毒이 된 것이다. 火毒生瘡·寒瘡·風瘡·濕瘡·暑瘡·疹瘍·疹瘤·丹毒(赤瘤)·風疹·癩風·癩瘍·疣痣·癩癰·而腫·陰疽·肺癰·心癰·腎癰·肝癰·脾癰·胃脘癰·腸癰·殷癰·懸癰·便癰·囊癰·附骨疽·疔疔·紅絞疔·魚臍疔·脫疫·食疫·大風瘡·天痘瘡·瘦癧·鵝牽癧·結核·瘰癧·疔瘻·疥癬·頭瘡·人面瘡·膝瘡·瘡臟風腎·凍瘡·湯火瘡·漆瘡·翻花瘡·軟癰⁷⁾·有名無名惡瘡·葡萄瘡·天行疔瘡·月蝕瘡·內疔瘡·疔瘡·走皮疔瘡·蛇纏瘡·魚目瘡·熱毒瘡·火斑瘡·諸般惡瘡 等等 數多한 病症이 있다. 瘡毒을

7) 軟癰에서 "癰"이 원래의 원고에는 "癰"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現代的으로 말하면 疥腫癰疽를 일으키는 微生物과 거기서 排泄되는 毒素라고 할 것 같다.

15. 老人性 疾患

老人性 疾患은 年老者의 老衰로 因하여 일어나는 病症이다.

16. 婦女性 疾患

婦女性 疾患은 婦女의 生理的 特性으로 因해 發하는 病症으로 不妊·月經諸症·血結成積·胎前·産後·臨産·小産(流産)·難産·惡阻·崩漏·帶下·陰挺脫·陰腫·乳汁諸症·乳癰·吹乳·妬乳 等等 數多한 病症을 發하는 것으로 縮水·帶下에는 濕熱·夾疫과 虛와 實 이 있다.

17. 小兒性 疾患

小兒性 疾患은 小兒의 生理的 特性으로 因해 發하는 病症으로 初生兒諸症·使閉無皮·不啼·不乳·吐乳·目閉·血眼·腎縮解顛·顛陷·顛腫·五軟·五硬·五遲·龜胸·龜背·流涎·夜啼·臍風·驚癇·麻疹·痘瘡·諸疳·胎毒·火丹·黃疸·癰疽 等等 數多한 病症을 發한다. 또 新生兒의 生理的 發育·成長으로 因해 發하는 變症이 있다.

18. 中毒性 疾患

中毒性 疾患은 食物中毒·藥物中毒·가스中毒 等으로 病症을 發하는 것이다.

19. 蟲性 疾患

諸寄生蟲으로 因해 發하는 病症이다. 諸蟲에는 虻蟲·白蟻蟲·伏肉蟲·肺蟲·胃蟲·弱蟲⁸⁾·赤蟲·尸蟲·勞蟲·疳蟲·癭蟲·三尸蟲·五

8) 胃蟲·弱蟲은 원래에는 "胃弱"으로 되

臟蟲·狐惑蟲⁹⁾·消渴·痔漏·諸瘡·齒痛·勞瘵 等에도 蟲이 있다.

20. 咬傷性 疾患

咬傷性 疾患은 蛇蟲類와 禽獸類의 咬傷으로 發하는 病理이다.

21. 五官系 疾患

五官系 疾患은 眼病·耳病·鼻病·咽喉病·口舌病·音聲病·齒牙病·脣病의 數多한 病症 이 있다.

上記한 病類를 整理해보면 風性疾患·寒性疾患·熱火性疾患·燥性疾患·外感性疾患·內感性疾患·內傷性疾患·正邪虛實性疾患·外傷性疾患·瘀血性疾患·痰飲性疾患·水濕性疾患·積聚性疾患·瘡毒性疾患·老人性疾患·婦女性疾患·小兒性疾患·中毒性疾患·蟲性疾患¹⁰⁾·咬傷性疾患·五官系疾患의 二十一種의 病類로 分類된다.

II. 病症類

二十一病類의 病症을 分別해 보면 風病 症·寒病症·熱病症·燥病症·外感病症·內感病症·飲食內傷病症·七情內傷病症·房勞內傷病症·勞役內傷病症·陰虛陽盛病症(陰虛內熱·陰虛火動)·陽虛陰盛病症(陰寒身冷)·外傷病症·寒風病症·風熱病症·風濕病症·寒熱病症·寒濕病症·濕熱病症·風寒濕雜合病症·風寒濕熱雜合中病症·氣虛病症·血虛病症·氣血俱虛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9) 狐惑蟲은 원래에는 "狐惑"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0) 蟲性疾患은 원문에는 빠져 있는데 있어야 한다고 보아 보충해 넣었다.

病症·氣實病症·血實病症·陰虛病症·陽虛病症·神虛病症·精虛病症·神實病症·老衰病症·婦女病症·小兒病症·中毒病症·諸蟲病症·咬傷病症·五官系病症 等, 四十二病症類로 分類된다. 그런데 이 分類는 아직 完全한 것이 못된다. 婦女病症·小兒病症·五官系病症을 더 分類해야 되기 때문이다.

各病症이 上記病症分類중 어디에 屬하나를 分別하여 그 病症의 屬性을 밝히는 것은 治療에 있어 가장 重要하다고 본다.

四十二病症類의 原因이 精·氣·神·血과 心·肝·脾·肺·腎·膽·胃·小腸·大腸·膀胱·三焦(膽包含)의 五臟六腑와 營·衛·十二經 以上은 漢醫學의 特殊體系에 虛實을 作하여 表·半表半裡·裡, 또는 頭·頸·上肢·手背·胸·乳·脇·腹·臍·腰·臀·前陰·後陰·下肢·足·皮膚·毛髮·肌肉·血脈·筋膜·骨·髓(骨髓·腦髓·精髓 包含)·精·氣·神·血·五臟·六腑의 部位에 病을 發함으로 病症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六腑와 十二經과 頭以下부터 髓까지는 五臟에 統合되고 營衛는 氣血에 綜合되므로 結局은 精氣神血 五臟으로 集約되니 四十二病症類의 原因이 精·氣·神·血·五臟에 虛實을 作하여 表·半表半裡·裡 또는 全身과 各 部位局所 等に 病症으로 發하는 것이 一切病이라고 하겠다.

III. 各病의 病症

1. 風病에는 風寒·風濕·濕熱·虛損·痰·瘀血 等症이 混雜한다.

諸風은 中風·痛風·癩病·破傷風·痰厥·中氣·麻痺 等이다.

中風에는 中臟·中腑·中經(或 中血脈)의

別이 있고 偏枯(半身不遂)·風痹(無痛四肢不舉 卽廢也)·風懿(卽 風癡也 忽然迷仆 舌強不語不知人)·風痺가 四大症이요 危症은 暴仆卒中이며 四肢痠癢을 風疾이라고 한다.

痛風에는 風寒·風濕·風熱·濕熱 等症이 混雜하고 痰에 血虛·汚血을 挾한다. 白虎歷節을 古方에서는 痛痺라고 하였고 今人은 痛風이라고 한다. 鶴膝風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痲疾後에 흔히 發하는데 膝節의 形이 鶴膝과 같다고 하여 此名을 갖게 된 것이다.

癩風(卽 癩病)은 太陽·督脈二經의 病으로 傷風有汗으로 發하는 것을 柔癩이라고 하고 傷寒無汗으로 發하는 것을 剛癩이라고 하며, 外傷·瘡腫癰疽 및 産後에 發하는 것을 破傷風이라고 하는데 風寒濕熱雜合中症이다.

痰厥은 中風이 痰厥에 屬하는 것으로 未卒仆로 喉中에 痰涎이 壅塞하여 拽鋸聲이 나는 것과 痰迷遂道하여 不行하므로 僵仆卒倒하고 痰涎壅塞으로 拽鋸聲을 發하는 것이 있다.

中氣는 中風이 氣에 屬한 것으로 七情內傷으로 風氣가 猝阻하고 痰潮·昏塞하여 發하는 것이다. 風中은 自溫·多痰涎하고 脈이 浮한데 人迎에 나타내고 氣中은 身冷·無痰涎하고 脈이 沈한데 氣口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麻痺는 風寒濕을 混雜한 것으로 麻痺不仁이다. 麻木을 著痺라고 한다. 十指麻木·腹皮麻痺 等等이 있으며 痺症에 屬한다.

2. 諸寒은 痲冷·寒厥·中寒·胸中寒·腹中寒·骨寒·手足冷 等等으로 風寒·寒濕 等症이 混雜한다.

3. 傷寒은 春에는 溫病이 되고; 夏에는 熱病이 되고; 秋에는 痺이 되고; 冬에는

傷寒이 되는 四時天行의 疫癘다. 이에도 風寒·風熱·濕熱·寒濕의 症이 混雜한다.

4. 火熱病은 鬱火·骨蒸·骨熱·四肢熱 등으로 風熱·濕熱·虛實 等症이 混雜한다.

5. 暑病에는 暴日下에서 暑를 맞으면 中暈이 되고; 納涼處에서 暑를 받으면 中暑가 되며; 熱에 맞으면 中熱이 된다. 또 여름타는 注夏와 伏暑 等等 數多한 病症을 일으키는데 飲食內傷·濕熱·寒濕·風寒 等症이 混雜한다.

6. 瘟疫은 穢熱이 內發하는 時行瘴癘病으로 長感이라고도 하는데 風寒·風濕·風熱·濕熱·寒濕 等症이 混雜한다.

7. 濕症에는 腫痛·漫腫·濡泄·中濕·傷濕·痿痺·濕腫 등이 있으며 風寒·風濕·風熱·濕熱·寒濕 等症이 混雜한다.

8. 燥病에는 皮膚乾燥·大便燥結·手足痿·肺燥咳嗽·悲傷欲哭·血燥·中清 등이 있으며 風寒·熱·血虛·水液衰少 等症이 混雜한다.

9. 卒厥에는 尸厥·氣厥·火厥·痰厥·血厥·中寒·驚死·驚死·熱厥·寒厥·風厥·食厥·蛔厥 等症이 있다.

10. 癰瘤은 虛損에 痰을 兼하는데 風熱·驚痰·瘀血 等症이 混雜한다.

11. 諸氣에는 七情內傷·飲食內傷·勞役內傷·外感 等症이 混雜한다.

12. 痰飲은 濕熱·寒濕·氣滯·火鬱·食積 등으로 生한다. 古書에서는 痰을 飲이라고 했고, 今書에는 飲이 痰으로 된 것으로 痰과 飲은 같다는 說도 있으나 臨床에서는 痰과 飲을 分別한다. 痰에는 風痰·寒痰·濕痰·燥痰·熱痰·氣痰·血痰 등이 있고; 飲에는 支飲·留飲·伏飲·溢飲·懸飲·癖飲·痰飲·流飲 등이 있다. 또 痰으로 邪祟와 같은 症을 發한다.

13. 脾胃病에는 勞倦內傷·飲食內傷이 있으며 濕熱·寒濕·虛損·風寒 等症이 混雜한

다.

14. 吞酸嘈噯에는 痰食熱症과 陽氣下陷虛 等症이 混雜한다.

15. 噎膈에 있어 噎病은 咽隘에 있는 것으로 氣가 主가 되고 痰과 積도 있다. 膈은 膈膜의 病으로 이 亦是 氣가 主가 되며 積과 飲癖 또는 瘀血·蟲을 挾기도 한다. 反胃는 胃의 病으로 이도 또한 痺가 主가 되며 積과 痰과 瘀血·蟲 등을 挾하기도 한다.

16. 噦惋은 痰熱·虛寒 等症이 混雜한다.

17. 呃逆에는 寒·虛·實이 있는데 그 氣가 膈下로부터 衝上하여 呃呃¹¹⁾하는 소리를 내며 衝脈의 病이다. 이를 咳逆이라고도 하는데 古의 咳逆과는 다르다. 古의 咳逆은 咳嗽氣急을 말하는 것으로 卽 咳而喘이다.

18. 咳嗽에는 風寒·風熱·虛勞·食積 等이 混雜한다.

19. 嘔吐에는 痰熱·虛損·積滯 等症이 混雜한다.

20. 霍亂에는 濕熱·寒濕·食積·七情內傷 等症이 混雜한다. 濕霍亂·乾霍亂·吐瀉轉筋霍亂¹²⁾ 등이 있다.

21. 吐瀉에는 濕熱·寒濕·食積 等症이 混雜한다.

22. 泄瀉에는 濕熱·寒濕·風·暑·積滯驚痰·虛陷 等症이 混雜한다.

23. 痢疾에는 積滯·濕熱·暑毒·虛滯·冷積·蠱毒 等症이 混雜한다.

24. 瘰癧에는 風寒·暑·熱·痰·食 等症이 混雜한다.

11) 呃呃은 원래는 “압”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2) 吐瀉轉筋霍亂에서 “轉”은 원래는 “輕”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25. 心下痞滿에 痛하는 것은 結胸胸痺이고; 不痛하는 것은 痞滿이다. 下하지 못하여 痞結한 것, 上虛로 痞滿한 것이 있는데 痰飲·食鬱·濕熱·氣鬱·脾虛 等症이 混雜한다.

26. 脹滿은 濕熱·寒濕·氣積·食積·血積 等症이 混雜한다.

27. 諸腫에는 風熱·水濕·氣虛·氣積·血虛·血積·痰 等症이 混雜한다.

28. 黃疸은 濕熱로 되는 것이나 濕熱·寒濕·虛寒·食積·瘀血 等症이 混雜한다.

29. 脚氣에는 風濕·寒濕·濕熱·食積 等症¹³⁾이 混雜하는데 風寒濕의 雜合症이다.

30. 喘逆을 古名으로는 咳逆上氣¹⁴⁾라고 한다. 風寒·火鬱·痰氣·水濕·氣虛·陰虛·虛勞·內傷 等症이 混雜한다.

31. 肺痿·肺癰·肺脹은 火鬱·氣虛·血分熱 等症이 混雜한다.

32. 虛勞에는 氣虛·血虛·精虛·虛寒 等症이 混雜한다.

33. 癰疽에는 蟲積·尸氣가 있다.

34. 邪祟는 邪氣가 乘虛한데 痰·血·火·鬱 等症을 따라 發한다.

35. 寒熱은 外感·內傷·火鬱·虛損·瘡毒(瘡腫癰癤) 等症이 混雜한다.

36. 諸血證 卽 出血症에는 陽勝과 陰勝의 症이 있으며 虛火·瘀血·風熱 等症이 混雜한다.

37. 諸汗에는 氣虛·痰熱·風熱·濕熱·血虛 等症이 混雜한다.

38. 怔忡에는 血虛·痰火·水濕 等症이 混

雜한다.

39. 驚悸에는 七情內傷·火·痰水濕 等症이 混雜한다.

40. 狂惑에는 火·痰·蓄血 等症이 混雜한다.

41. 煩躁에는 虛·痰·火·蟲 等症이 混雜한다.

42. 不眠은 虛(心虛·膽虛) 兼 火·食鬱이 混雜한다. 대체로 虛煩不睡다.

43. 多睡는 昏沈多睡로 脾虛·濕熱·風熱 等症이 混雜한다.

44. 消渴은 上消·中消·下消가 있는데 上消는 少食이고; 中消는 多食이고; 下消는 小便이 膏油와 같다. 小便이 甘味오 渴而引飲하는 것이 特徵이다.

45. 遺精夢泄에는 虛(心虛·腎虛)·濕熱 等症이 混雜한다. 精滑·脫精·白淫 等症이 있다.

46. 赤白濁에는 赤은 血에 屬하고; 白은 氣에 屬하는데 濕熱·虛損 等症이 混雜한다.

47. 癰淋에는 熱이 上焦에 있으면 口渴이 있고; 中焦에 있으면 口渴이 없다. 濕이 中焦에 있어 癰閉¹⁵⁾하는 것과 下焦氣閉로 癰閉¹⁶⁾하는 것과 前後關格으로 不通하는 것, 轉脬 等이 있고; 五淋은 熱淋·氣淋·虛淋·膏淋·砂石淋이다. 熱·濕·氣·濕熱·寒濕 等症이 混雜한다.

48. 洩數遺尿에는 虛熱·虛寒·陽虛·神虛 等症이 混雜한다. 小便血에 不痛한 것은 尿血로 虛가 主가 되고; 痛한 것은 血淋이

13) 等症에서 “等”은 원래는 “經”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4) 咳逆上氣에서 “咳”는 원래는 “尸”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5) 癰閉에서 “癰”은 원래는 “降”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6) 癰閉에서 “癰”은 원래는 “隆”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나 熱이 주가 된다.

49. 強中에는 肝火盛하여 強한 것이 있고; 金石性藥物로 莖盛不衰·精出不止라는 것이 있는데 後者는 消渴·癰疽를 多發한다.

50. 囊癢·陰門癢痛은 濕熱·風虛 等症이 混雜한다. 陰汗·陰燥·陰痛 等症이 있다.

51. 大便秘結에는 熱·風·氣·血·濕·虛·脾約·三焦約·前後關格 等症이 混雜한다.

52. 脫肛에는 瀉利·痔漏 等으로 發하는 것으로 寒濕·氣虛 等症이 混雜한다. 肛門腫痛도 發한다.

53. 痔漏에 있어서는 初期¹⁷⁾에는 痔만 있던 것이 久하면 成漏한다. 寒濕·鬱氣·血熱·濕熱·蟲 等症이 混雜한다.

54. 諸蟲은 虻蟲·白蠅蟲·寸白蟲 等等이다.

55. 積聚·癥瘕에는 痰飲·氣鬱·食積·瘀血·蟲積 等症이 混雜한다.

56. 瘀血은 鬱怒·勞力損傷·外傷·熱鬱 等으로 生한다.

57. 諸血症에는 鬱怒·濕熱·積熱·蟲痔·虛寒 等症이 混雜한다.

58. 疝·瘕에 있어 腹痛을 疝이라고 하고; 丸病을 疝라고 한다. 寒濕·濕熱·積痰·血滯·虛寒 等症이 混雜한다.

59. 腰痛에는 腎虛·濕熱·痰氣·瘀血·風寒·食積·寒濕 等症¹⁸⁾이 混雜한다.

60. 肩臂痛에는 氣滯·血滯·寒濕·血虛·氣虛·風寒·瘀血·痰 等症이 混雜한다.

61. 背痛에는 氣鬱·火鬱·風寒·風熱·氣虛·痰飲 等症이 混雜한다. 背熱은 虛火다.

62. 脇痛에는 肝膽火·氣鬱·死血·痰澀·食

滯·氣虛 等症이 混雜한다.

63. 心腹痛에는 寒氣·熱氣·火鬱·食積·死血·痰澀·蟲積·虛勞·中惡·陰毒·七情內傷·濕熱 等症이 混雜한다.

64. 腸鳴에는 氣虛·水飲·蟲積·中清·虛寒 等症이 混雜한다.

65. 頭痛·偏痛에는 外感·內傷·氣虛·血虛·風熱·濕熱·寒濕·痰厥 等症이 混雜한다.

66. 眩暈은 日黑暈과 頭旋으로 氣虛·痰·熱·風·血虛·外感 等症이 混雜한다.

67. 眼病에는 肝虛·七情內傷·風熱·濕熱·風寒 等症이 混雜한다.

68. 耳病에는 風寒·風熱·濕熱·氣虛·血虛 等症이 混雜한다.

69. 面病에는 風熱·風寒·濕熱·血滯·痰飲·血虛 等症이 混雜한다.

70. 鼻病에는 風熱·風寒·血熱·濕熱 等症이 混雜한다.

71. 口舌唇齒病에는 風熱·濕熱·風寒·蟲 等症이 混雜한다.

72. 咽喉病에는 風熱·風寒·濕熱·虛 等症이 混雜한다.

73. 婦人病에는 風熱·風寒·風濕·寒濕·濕熱·氣虛·血虛·痰·七情內傷·食積·瘀血 等症이 混雜한다.

74. 小兒病에는 風熱·風寒·風濕·寒濕·痰·食積 等症이 混雜한다.

75. 瘡毒症에는 風·寒·濕·熱·髒·風熱·濕熱 等症이 混雜한다.

IV. 漢洋醫學 病名의 統

上記한 바와 같이 各病에 어리 病症類의 症이 混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關係는 같은 病인데도 治療가 다르고 病이

17) 初期에서 “期”는 원래는 “起”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8) 等症에서 “等”은 원래는 “發”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다른데도 治療가 같아지는 理由를 說明해 주는 것이다. 實際의 例를 들어본다. 여기 六名の 病人이 咳嗽가 나며 微熱이 있고 頭痛이 난다고 한다. 以外에 六人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症이 있고 體質이 다르며, 環境이 같지 않은 것은 勿論이다. 그런데 診察을 해보니 六名이 다 內傷虛勞性疾患이었다. 一番患者는 酒色家요; 二番患者는 寡婦요; 三番患者는 消化不良者요; 四番患者는 頭目昏運에 便秘가 있고 小便이 赤澁하며; 五番患者는 痰이 盛하며 胃內停水症이 있고; 六番患者는 胸膈苦滿症이 있다.

이 六名患者가 다 內傷虛勞性疾患이므로 補하는 處方이라야 된다는 것이 確定된다. 그러나 어떻게 補해야 하느냐 하는 問題가 남아 있다. 이는 다시 各 病症類에 따라 處方을 選擇 또는 變化시키어야 하며 現主症에 따라 加味하고 또 現症이나 體質을 보아 不必要한 藥物은 除外해야 한다.

一番患者는 滋陰降火湯; 二番患者는 逍遙散; 三番患者는 離金湯; 四番患者는 六味地黃湯 加羌活·獨活·石膏; 五番患者는 二四湯; 六番患者는 柴胡四物湯이 될 것이다. 그러면 現症과 體質을 보아 加減을 한다. 一番患者는 滋陰降火湯 그대로 使用; 二番患者는 逍遙散에 鎮咳하는 藥物로 加味하여 使用하고; 三番患者는 消化不良으로 四物湯이 不適하니 離金湯에서 四物湯을 除外한다. 그러면 不換金正氣散이 된다. 不換金正氣散보다는 此方에 加味方인 藿香正氣散이 낫다. 그러므로 藿香正氣散에 鎮咳藥으로 橘貝를 加하여 使用한다. 四番患

者는 六味地黃湯 加羌活·獨活·石膏인데 體質上 石膏가 不適當하므로 石膏를 除하고 대신 知母·黃柏을 加味하고 鎮咳藥을 加味하여 使用한다. 五番患者는 二四湯에 鎮咳藥을 加味하여 使用한다. 六番患者는 柴胡四物湯에 鎮咳藥을 加味하던지 또는 心下에 水氣가 있으면 小奇龍湯을 쓰든지 한다. 이렇게 해서 六名患者의 處方이 確定되었다. 다시 말하면 診斷이 完全히 끝난 것이다.

비로소 六名患者의 治療는 各 處方에 따라 始作된다.

그러나 이 六名患者가 洋方的으로 肺結核이라고 診斷이 내려졌다. 그러면 漢方診斷은 六種이 된다. 그中 一番患者를 例로 들어보자. 一番患者는 內傷虛勞性疾患의 陰虛火動症 咳嗽가 될 것이다. 漢洋診斷을 統合하면 內傷虛勞性疾患 陰虛火動症 肺結核 咳嗽가 될 것이다. 이를 略하여 內傷性 陰虛火動肺結核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臨床研究가 進行되면 漢方治療의 客觀性은 漸漸 分明해지고 또 反面 洋方의 劃一的 肺結核 治療는 多元的治療로 前進하여 經驗醫學의 直線的治療에서 東西醫學의 平面的治療로 進化했던 醫學이 融合된 立體醫學으로 自然 統一되어 一元화된 醫學의 立體的治療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韓國醫學界에서 成就되어야 할 점이며 慶熙大學校 醫科大學의 漢醫學科와 醫學科가 손잡고 研究해야 할 첫 段階의 研究課題가 아닌가 한다.